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천아포수산연구소와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에 들어서니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을 비롯하여 2차레나 이곳을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못건디게 그림다고 하시면서 이 연구소도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애민유산중의 하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낳은 결정체인 연구소구내에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를 잡아주시였으며 연구소의 이름을 천아포수산연구소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공수정실, 알발육실, 실내 및 야외양어못, 사료가공장, 물고기가공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연구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가공품들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가 자리잡고있는 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어촌마을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에

천아포수산연구소의 관리운영을 맡기였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양어에서도 세계패권을 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일념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교양마당과 주변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키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업소에서 당의 령도밑에 새로 건설한 현대적인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수업과 수산업, 건설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절실히 필요한 그물과 바줄, 수지관들을 생산하고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은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건한 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좌석수는 얼마인가, 리용은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회관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관복도에 게시한 직관물들을 보시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특히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제, 만미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안고 무대에 나온 소개자는 전례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진시찰의 길에 계시며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원수님께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예술선전대는 공연무대에 남성중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녀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시랑송 《원수님은 화선에 계신다》, 녀성6중창 《인민의 환희》,

트럼베트와 노래 《충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 토막이야기 《훈장의 두 분대장》, 남성독창과 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타5병창 《7.27행진곡》, 시와 이야기 《사회주의불빛과 초병의 눈빛》,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예술선전대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북 남 실무 회담이 있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남측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사이의 실무회담이 17일 관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북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데 대해 다시금 밝히고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비행기와 료로에 의한 배양경로와 필요한 운수수단, 경기진행과 응원활동, 신변안전문제와 통신보장 및 우리 기자들의 취재활동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남측이 우리 응원단파견에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뭐니 하는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며 정치화하고있는것은 북측의 경기대회참가에 엄중한 후파를 미칠수 있다는데 대해 경고하였다.

남측은 북측의 참가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오늘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제22차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전례가 있는것만큼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내부적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오전 회담에서 북측안에 호응하던 남측이 오후에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완전히 돌변하여 도전적으로 나왔다.

남측은 지령을 받느라고 14시로 예정된 오후회담을 2시간 15분이나 지연시켰으며 뒤늦게 회담탁에 나와서는 오전에 저들이 한 말을 모두 뒤집으면서 《국제판례》니, 《대표단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 《남측정서》니, 《신변안전보장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응원단의 규모와 국가의 규격까지 걸고들다 못해 공화국기는 물론 《한반도기(통일기)》도 큰것은 안된다고 도전해나섰다.

나중에는 북측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비용문제를 꺼내들며 자부담이니 뭐니 하고 쟁치려는 추태를 부리였다. 북측이 그 무슨 국제판례요, 대회규정이요 하면서 우리 선수단, 응원단의 규모와 언급하지도 않은 비용문제지어 국기문제까지 들고나오며 어처구니없이 놀아대는데

대해 강하게 문제시하자 말문이 막힌 남측은 더욱 분별을 잃고 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그러한 태도가 실무회담을 결렬시키고 우리의 경기대회참가를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는데 대해 추궁하고 남측이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북측의 경기대회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것이라는것과 경기대회참가문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결국 모처럼 진행된 북남 실무회담은 남측의 부당한 태도와 도발행위로 하여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다음번 회담날자도 정하지 못한채 결렬되였다.

남측은 회담을 파란의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 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 북과 남사이의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로 나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대응단을 내리는것이다. 력대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관계문제에서 내든 동족대결정책에는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이 응축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없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남조선이전 《정권》시기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 000》만 놓고보자.

그 누구의 《력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 정책

아닌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하였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면서 헐뜯고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한것기 바로 《비핵, 개방, 3 000》을 떠든 리명박보수당국이였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로골적으로 떠들다 못해 《통일은 한반중에 도적같이 울수 있다.》는 꾀변으로 《체제통일》, 《흙수통일》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보임으로써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이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로 고

조되던 북남관계가 과국으로 치달고 결과적으로 북남사이 에 포탄이 오고가는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이 이전 《정권》의 대결정책이 불어온 이러한 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임자들의 전철을 되풀이하고있는것은 지금 온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신티프로세스》도 북남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고있다.

《신티프로세스》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는 《통일은 대박론》이나 《드레즈덴선언》같은것들이 그것이 품고있는 동족대결, 《체제통일》기도로 하여 세상에 나 오자마자 민족의 규탄배격

을 받은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현시기 과국상태에 처해있는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진시켜나가는 공화국의 드림없는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는 정부성명에 지적되어있는바와 같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대응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

속에 칼을 품고 말로만 《신티》와 《통일》을 운운하는 구시대적인 령전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민족과 통일을 위한 바른 정책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